<h1>나 혼자만 레벨업-97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n24eae6c89d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7화</p>  
<p>그 소리를 듣자마자 백윤호는 편히 앉았던 자세를 바로 했다.</p>  
<p>'하필 그날 눈을 떴다고?'</p>  
<p>-아, 정확히는 그 전날에 깨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.</p>  
<p>이내 안상민이 대답을 정정했지만, 백윤호가 생각하기에 하루 정도의 시간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.</p>  
<p>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성진우 헌터일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.</p>  
<p>"...알겠습니다. 그만하면 됐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"</p>  
<p>그렇게 전화를 끊은 백윤호는 보고서 파일들이 저장된 폴더를 찾아 문서 하나를 열었다.</p>  
<p>제2관리과에서 성진우에 대해 조사해 보낸 보고서였다.</p>  
<p>딸깍, 딸깍.</p>  
<p>백윤호는 다른 것보다 진우의 최근 행적을 주의 깊게 살폈다.</p>  
<p>그전까지 그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.</p>  
<p>툭하면 다치고 수입도 별로인, 전형적인 E급 헌터의 삶을 살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이중 던전 사고...'</p>  
<p>그날 백윤호도 현장에 있었다.</p>  
<p>협회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형길드 백호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고, 백윤호는 기꺼이 정예 공격대와 함께 그곳을 찾았다.</p>  
<p>위용, 위용!</p>  
<p>거기서 그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에 실려 가는 한 남자를 보았다.</p>  
<p>'그때는 그 남자가 성진우인지 몰랐지만...'</p>  
<p>그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</p>  
<p>어쨌든.</p>  
<p>이때를 전후하여 성진우는 완전히 달라졌다.</p>  
<p>얌전히 협회 일만 돕던 그가 일반인 공격대에 들어가는가 하면, 갑자기 C급 게이트를 하루에 몇 개씩이나 클리어하기 시작했다.</p>  
<p>분명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.</p>  
<p>백윤호는 확신했다.</p>  
<p>'평범한 재각성은 아니다.'</p>  
<p>안 과장은 재각성한 성진우 헌터의 힘을 유진건설 쪽에서 테스트해 본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.</p>  
<p>'아니.'</p>  
<p>그렇다면 재각성이 끝나고 나서도 부쩍 성장해 버린 그의 힘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.</p>  
<p>그러니 정말로.</p>  
<p>'...자신의 힘을 성장시킬 수 있는 헌터가 있다면?'</p>  
<p>게다가 불과 몇 달 사이에 E급이었던 능력을 S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면?</p>  
<p>"..."</p>  
<p>백윤호는 저도 모르게 침음성을 흘렸다.</p>  
<p>소름 돋는 일이었다.</p>  
<p>물론 그 정체불명의 게시물을 쓴 사람과 성진우 헌터가 동일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그 글에서처럼 성진우 헌터가 자신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다면, 여기서 얼마나 더 위로 올라가게 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졌다.</p>  
<p>그와 동시에.</p>  
<p>'내가 어리석었다.'</p>  
<p>성진우 헌터가 왜 그리도 길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.</p>  
<p>'입장을 바꿔 생각해 봐도...'</p>  
<p>자신에게 한계 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과연 남의 길드에 들어가고 싶을까?</p>  
<p>백윤호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'차라리 길드를 만들고 말지.'</p>  
<p>국내 1위, 2위 길드가 다 무슨 소용일까?</p>  
<p>어차피 자기가 있는 곳이 최고가 될 텐데.</p>  
<p>'이거 최종인 대표나 나나 완전히 헛물켜고 있었구만.'</p>  
<p>지금도 성진우 헌터를 찾아 발바닥에 땀 나도록 돌아다니고 있을 최 대표를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'내 가정이 사실이라면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.'</p>  
<p>머지않아 그는 대한민국 헌터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.</p>  
<p>아니, 전 세계의 헌터들이 그를 주목할지 모른다.</p>  
<p>성진우 헌터에 대한 플랜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할 때였다.</p>  
<p>그러나 그전에 먼저.</p>  
<p>'일단 그를 만나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겠어.'</p>  
<p>백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진우 헌터를 만나는 게 가장 급선무였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...어떻게 시간을 좀 내 달라고 하지?'</p>  
<p>백윤호는 머리를 움켜쥐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그동안 숱하게 보냈던 요청에 답장 한번 주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으니,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감정사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.</p>  
<p>"던전에서 주웠다고요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악마성 '던전'에서 탐욕스러운 볼칸을 잡고 '주운' 거니까.</p>  
<p>거짓말은 아니었다.</p>  
<p>'던전에서 저런 걸 주울 수 있다고?'</p>  
<p>'지금 제작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물건이긴 한데...'</p>  
<p>물어본 감정사나 같이 대답을 들은 감정팀 두 사람이나 믿기 어렵다는 얼굴들이었지만, 당사자가 그렇다니 그리 알고 있을 수밖에.</p>  
<p>사실 지금 붉은 마법구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.</p>  
<p>'이걸 헌터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한 거지.'</p>  
<p>팀장이 앞으로 나섰다.</p>  
<p>"진품이 확실하군요."</p>  
<p>그의 시선이 진우의 손에 들린 구슬 쪽으로 향했다.</p>  
<p>"저희 측에서 경매를 진행하시겠습니까? 최고의 값을 받게 도와 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어떡한다?</p>  
<p>진우는 탐욕의 구슬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기에 앞서 이곳에 들린 다른 용건을 물었다.</p>  
<p>"혹시 화속성 방어 아티팩트를 살 수 있습니까?"</p>  
<p>팀장과 김정기가 서로를 돌아보았다. 두 사람은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진우는 의아했다.</p>  
<p>"제가 못 물을 거라도 물었나요?"</p>  
<p>'아닙니다."</p>  
<p>"그럼 화속성 방어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던가?"</p>  
<p>"실은..."</p>  
<p>팀장이 웃으며 말했다.</p>  
<p>"그 반대입니다. 너무 구하기 쉬운 거라."</p>  
<p>"인터넷에 없던데요?"</p>  
<p>"속성이 붙은 무기나 방어구는 워낙 고가라 인터넷으로는 잘 내놓지 않습니다. 그래도 구하려면 금방 구해지는 물건입니다. 공격 마법 중에는 화속성 마법이 가장 흔하니까요."</p>  
<p>하긴.</p>  
<p>여태껏 만났던 마법계열 헌터는 대개 불이나 빛을 다루었다.</p>  
<p>S급인 최종인 헌터도 화염계 마법이 특기라고 들었다.</p>  
<p>심지어 진우 본인이 다루는 그림자 마법병들도 불을 썼고, 특히 어금니는 입으로 직접 불을 뿜기까지 한다.</p>  
<p>그만큼 흔하다는 소리다.</p>  
<p>'구하기 쉽다니 다행이네.'</p>  
<p>고가라는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어머니의 치료가 달려 있다.</p>  
<p>빨리만 구할 수 있다면 가격이야 얼마든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다.</p>  
<p>여차하면 탐욕의 구슬을 팔아도 되니까.</p>  
<p>"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?"</p>  
<p>"네, 알겠습니다."</p>  
<p>팀장은 감정실을 나가려다 말고 김정기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정기 씨. 여기서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도 뭐하니 헌터님께 경매품들이라도 보여 주고 있는 건 어때요?"</p>  
<p>"아, 그러겠습니다."</p>  
<p>김정기가 앞장섰다.</p>  
<p>"따라오시죠."</p>  
<p>두 사람은 전시실로 갔다.</p>  
<p>경매를 앞두고 있거나 아직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초고가 아티팩트들을 모아 둔 VIP 전용 전시장이었다.</p>  
<p>무기나 방어구, 룬석 등등이 투명한 상자 속에 진열되어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그중 하나.</p>  
<p>장검이 들어 있는 유리 상자를 보고 멈춰 섰다.</p>  
<p>김정기가 다가왔다.</p>  
<p>"맘에 드는 물건이라도 있으신 가요?"</p>  
<p>"아뇨, 그게 아니라."</p>  
<p>진우는 노크하듯 유리 상자를 톡톡 쳤다.</p>  
<p>"이렇게 얇은 상자 하나로 아티팩트를 지킬 수 있나요? 별다른 보안 장치도 없는 듯한데."</p>  
<p>그러자 김정기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그래 보여도 최고의 제작자들이 마력을 투여한 강화 유리입니다. A급 전투계열 헌터가 전력으로 때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물건이에요."</p>  
<p>"A급이 쳐도...?"</p>  
<p>진우가 반신반의하자 김정기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.</p>  
<p>"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쳐 보시겠습니까? 만에 하나라도 부서진다면 안에 든 아티팩트를 헌터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."</p>  
<p>"흠..."</p>  
<p>정말 이 강화 유리란 게 그렇게 튼튼한 걸까?</p>  
<p>'마력이 느껴지긴 하는데.'</p>  
<p>호기심이 생긴 진우는 오른팔에 힘을 주었다.</p>  
<p>후욱-</p>  
<p>순간적으로 어깨와 팔뚝이 팽창하며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.</p>  
<p>"자, 잠깐만요!"</p>  
<p>김정기가 급하게 가로막았다.</p>  
<p>"말이 그렇다는 거죠. 실제로 쳐 보란 얘기가 아니라."</p>  
<p>"아, 예."</p>  
<p>"진짜로 깨지기라도 하면 헌터스의 정예들이 달려옵니다. 저희 옥션과 헌터스는 보호 계약을 맺었거든요."</p>  
<p>"아하."</p>  
<p>농담 한번 진담처럼 하네.</p>  
<p>진우는 힘을 거뒀다.</p>  
<p>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던 위압감이 사라지자 김정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'그런데 이 사람, 마법계열 헌터라고 하지 않았나?'</p>  
<p>무슨 마법계열 헌터의 기세가 이리도 무지막지한지...</p>  
<p>사실 쳐 보란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.</p>  
<p>S급 헌터라고 해도 마법계열인데 근력이 대단해 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생각에서였다.</p>  
<p>그런데 진우가 집중하는 순간 털이 곤두서면서 본능적으로 그를 막아야겠다는 직감이 들었다.</p>  
<p>다행히 진우는 순순히 물러났다.</p>  
<p>'뭐, 잘못하면 헌터님의 손이 다쳤을지도 모르니까.'</p>  
<p>김정기는 그렇게 위안 삼으며 다른 아티팩트들을 안내했다.</p>  
<p>내부를 한 바퀴 둘러 본 진우가 물었다.</p>  
<p>"만져 볼 수 있는 무기는 없나요? 단검 종류로."</p>  
<p>무기에 의존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동안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지만, 전시된 각종 장비들을 보니 돌연 관심이 생겼다.</p>  
<p>김정기의 얼굴이 환해졌다.</p>  
<p>헌터들에게 아티팩트들을 관람시키는 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다.</p>  
<p>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다.</p>  
<p>헌터는 판매자이기도 하지만, 귀한 고객이기도 하니까.</p>  
<p>"물론 있습니다."</p>  
<p>그렇게 대답한 뒤 목 아래에 부착된 마이크로 무기류 담당 직원을 호출했다.</p>  
<p>그새 마음이 바뀔까 싶었는지, 담당자가 금방 뛰어왔다.</p>  
<p>"이분이?"</p>  
<p>담당자가 눈빛을 보내자 김정기가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"아, 반갑습니다. 무기 쪽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 같이 가시죠."</p>  
<p>담당자는 진우를 데리고 VIP 전시실을 빠져나갔다.</p>  
<p>두 사람을 보낸 김정기가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.</p>  
<p>'성진우 헌터님은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네.'</p>  
<p>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김정기가 별생각 없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까 진우가 관심을 보였던 그 장검 앞에 섰다.</p>  
<p>진우와 진열창 위치가 너무 가까웠기에 지문이라도 묻었는지 살펴보던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응?"</p>  
<p>상자 위쪽.</p>  
<p>"어라?"</p>  
<p>상자 위쪽 한 모퉁이에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세하게 금이 간 부분이 있었다.</p>  
<p>"이건 또 언제 이렇게 됐어?"</p>  
<p>손수건을 꺼내 문질러 봤지만 지워지지 않았다. 때가 묻은 게 아니라 금이 간 게 맞았다.</p>  
<p>"참나."</p>  
<p>김정기는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주요 고객이 될지도 모르는 성진우 헌터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실망했을까?</p>  
<p>잘 안 보이는 모서리 근처라 그나마 다행이었다.</p>  
<p>쯧쯧.</p>  
<p>혀끝을 차며 관리팀을 호출해 둔 김정기가 진우를 따라 VIP 전시실을 나섰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진우는 담당자가 보여 주는 단검을 들어 보았다.</p>  
<p>솔직히 말해 형편없었다.</p>  
<p>'입수 난이도 B급의 나이트 킬러보다도 안 좋네.'</p>  
<p>공격력이 '나이트 킬러'의 반도 되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실망스런 얼굴로 단검을 돌려주며 물었다.</p>  
<p>"이건 얼마죠?"</p>  
<p>"3천만 원입니다."</p>  
<p>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이딴 게 얼마라고?</p>  
<p>"얼마라고요?"</p>  
<p>"3천만 원입니다, 헌터님."</p>  
<p>"잠시만요."</p>  
<p>진우는 돌아서서 품속을 뒤지는 척하며 나이트 킬러를 보여 주었다.</p>  
<p>"이런 건 얼마나 합니까?"</p>  
<p>직원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.</p>  
<p>"헌터님 물건입니까? 이야, 섬세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단검이네요!"</p>  
<p>아니, 그거 상점표인데...</p>  
<p>약간 망설이던 직원이 웃음을 띠고 말했다.</p>  
<p>"제가 전문 감정사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는 힘들지만, 못해도 얼추 1억 이상은 갈 듯한 물건으로 보이네요."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굳었다.</p>  
<p>'이거 상점에서 3백만 골드 주고 산 건데?'</p>  
<p>정확히는 280만이었던가?</p>  
<p>진우의 표정을 확인한 직원이 민망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.</p>  
<p>"제가 틀렸습니까? 무기류는 제가 전문이라 주제넘게 말씀드려 본 겁니다만."</p>  
<p>"그런 건 아닙니다."</p>  
<p>그냥 터무니없이 비싼 아티팩트 가격에 놀랐을 뿐이었다.</p>  
<p>하긴.</p>  
<p>처음 손에 쥐었던 공격력 10짜리 김상식의 강철검도 3백이나 한다고 들었고, 별로 쓰이지 않은 유진호의 장비들도 억대를 호가했다.</p>  
<p>시스템 상점에서 판매하는 높은 능력치의 아이템들이 고가로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었다.</p>  
<p>'내가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지.'</p>  
<p>돈에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까.</p>  
<p>'잠깐만...'</p>  
<p>지금 골드는 창고에 넘치도록 쌓여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골드로 살 수 있는 상점표 아이템을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면?</p>  
<p>진우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.</p>  
<p>'굳이 탐욕의 구슬을 안 팔아도 되겠는데?'</p>  
<p>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.</p>  
<p>와아아-</p>  
<p>기분 탓일까?</p>  
<p>발밑 그림자 속에서 마법병들의 환호성이 들린 것만 같았다.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